

# 일제 강점기 군산좌의 설립 과정과 문화적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Cultural Role of Gunsanjw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김남석 Kim Namseok\*

### Abstract

Gunsanjwa is a theater established in Gun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was a representative local theater that grew up with the floating population and commercial capital of Gunsan. Since Gunsanjwa was a theater located in an area separate from the Gyeongbu Line railway, there were many disadvantages in supplying and distributing theater/movie/performance content. However, Gunsanjwa was a theater where it was possible to perform tours to Honam(Jeollado), and it also had a relative advantage that it could be occupied exclusively if it aimed for the route(the western part of Korea). As a result, Gunsanjwa was able to operate as a theater that attracted attention from the early days. In order to study Gunsanjwa,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he aspect of the theater, but also the geographical situation, the size of the city, and the transportation network(railway network) at the time. In order to examine the reality and characteristics of Gunsanjwa, this study aimed to synthesize data on maps, newspaper articles, performance photos, and related persons at the time.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location, scale, facilities, managers, and performance contents of Gunsanjwa based on this.

Keywords: Gunsangeukjang, Gunsanjwa, Local Theater, Locality, Cultural Role

### I. 문제 제기

군산은 19세기에 개항된 조선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였다. 병자수호조규를 통해 일본은 부산(1876년)과 원산(1882년) 그리고 인천(제물포, 1883년)을 우선 개항하였고, 이후 1897년에 목포와 진남포 등도 순차적으로 개항해 나갔다. 순서상으로 군산은 목포와 진남포 다음에 해당되는 개항장으로, 1899년에 성진, 마산 등과 함께 개항되었다(김영정 1995, 142). 이후 개항장 군산은 금강 수운을 이용하여 곡창지대의 운송을 전

담하는 해항으로 거듭났다.

군산은 19세기에 개항된 조선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였다. 병자수호조규를 통해 일본은 부산(1876년)과 원산(1882년) 그리고 인천(제물포, 1883년)을 우선 개항하였고, 이후 1897년에 목포와 진남포 등도 순차적으로 개항해 나갔다. 순서상으로 군산은 목포와 진남포 다음에 해당되는 개항장으로, 1899년에 성진, 마산 등과 함께 개항되었다(김영정 1995, 142). 이후 개항장 군산은 금강 수운을 이용하여 곡창지대의 운송을 전담하는 해항으로 거듭났다.

\* 국립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Prof. of Pukyong National Univ. | darkjedi73@naver.com

군산은 이러한 수운과 곡식 운송으로 인해 여타의 개항장과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현상으로 거주 지역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다른 항구 도시에서는 일본인 혹은 외국인 거주 지역이 조선인 거주 지역과 분리되어 설치되었으나, 군산에서는 조선인 거주 지역이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 변모하는 특이 현상이 나타났다. 그만큼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수탈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이 거주하던 군산이 개항과 수탈로 인해 일본인의 도시로 변모하면서, 극장 역시 자연스럽게 일본인 거주 공간에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초기의 개항장 내 극장은 거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인 사주가 건축을 시행하고 일본인 관객 위주의 공연장으로 설계 기획되었다. 이러한 최초 공연장의 모습과 사정은 개항장 부산이나 인천 혹은 원산이나 마산의 경우도 대체로 유사했다. 군산의 경우 그러한 초기 극장의 일례로 명치좌와 군산좌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극장은 1906년 군산시가지도에 그 자취가 남아 있다(윤정숙 1985, 90).

하지만 군산의 극장, 그것도 20세기 초기에 설립된 극장에 대한 정보는 매우 희귀한 편이다. 관련 연구도 거의 시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까지는 그 전모를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군산의 초기 극장으로서 군산좌의 실체와 극장 전모를 논구해야 할 필요하에 기획 기술되었다.

우선 희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위경혜와 김남석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위경혜는 윤정숙의 논문을 근거로 ‘군산좌와 ‘명치좌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그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혀내지 못했다(위경혜 2010, 42-45). 엄밀하게 말하면 두 극장이 군산에 존재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기술했을 따름이다. 극장 연구의 시발점으로는 언급될 수 있지만, 극장 자체에 관한 연구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해야 한다.

2018년 김남석(2018, 13-132)은 전국의 지역 극장을 정리하면서 군산좌에 대한 언급도 간략하게 삽입한 바 있다. 군산좌의 사주와 관련 행사를 기술한 점은 일정한 의의를 지니지만, 이 연구 역시 그 내용이 지나치게 소략하여 역시 본격적인 연구로 간주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군산좌에 관한 연구는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극장 건립과 관련 문화사는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대극 도입기(초창기)에 전국의 지역 극장이 난립했고, 그러한 극장이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전에 사라졌으며, 일제하의 극장들 대부분이 일본인 사주 극장이었다는 이유로 한국 연극/영화사의 일부로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극장과 문화 행위(공연 콘텐츠 제작과 유통 그리고 관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극장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와 접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해당 연구의 일환으로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극장이었던 군산좌의 설립과 자취, 운영 방식과 공연 작품, 지리적 상관성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실증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군산을 대표하는 초창기 극장답게, 이 극장의 운영과 특징은 군산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었다. 따라서 군산좌 연구를 위해서는 군산에 대한 접근도 동반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군산이 일찍부터 개항장이었고, 상업과 해운의 중심이었음에도, 해당 도시의 면모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점은 시급히 보완을 요청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군산의 오래된 극장 군산좌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수준과 인프라를 확인하는 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관찰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전북과 인근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살피고, 공연 콘텐츠의 이동과 확산

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찰해야 할 대상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산좌의 실체와 군산좌를 둘러싼 개항 초기 군산의 공연 문화 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 II. 군산좌의 성립과 배경

### 1. 군산좌의 위치와 주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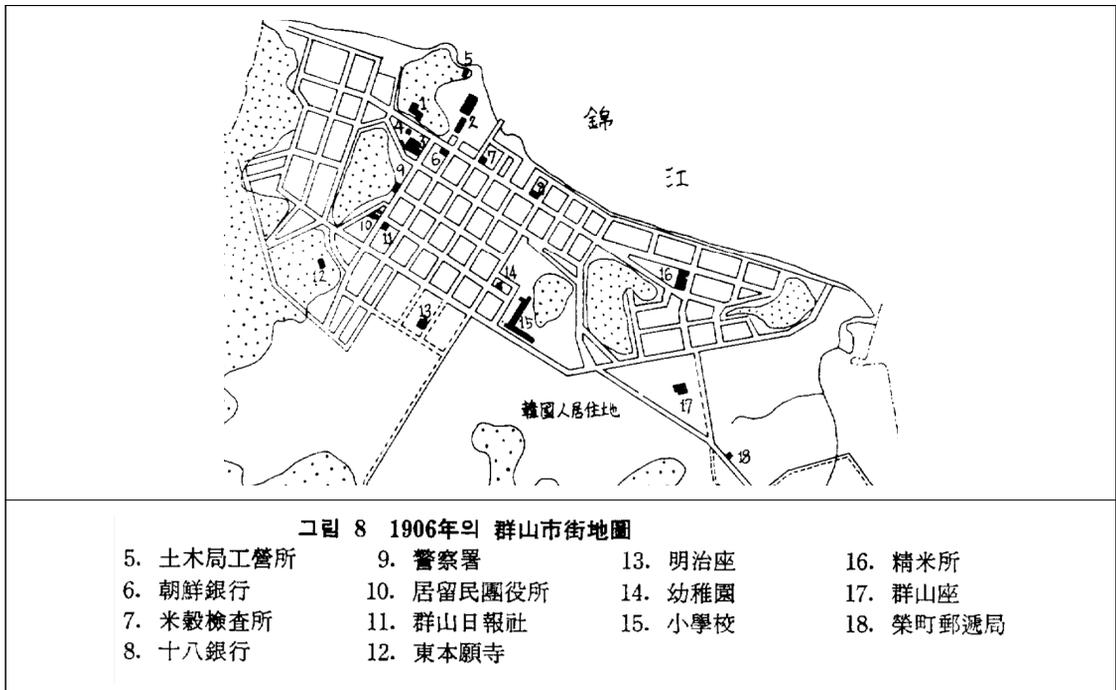
군산좌(群山座)는 군산부 노정에 위치했던 극장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대로 1900년대 작성된 군산 관련 지도에서 그 자취를 드러낸 극장이었다.

<Figure 1>의 지도는 1906년경 군산시가지도인데(윤정숙 1985, 90), 이 지도에는 명치좌와 군산좌가 표기되어 있다. 금강을 끼고 계획된 조계지 군산은 격자

형의 시가 배치를 갖춘 해항이었는데, 명치좌는 그 시내(시가지)에 위치한 극장이었다. 군산좌 주변에는 영정 우체국(郵便局)이 위치하고 있었고, 정미소도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근대 초기 극장의 입지와 관련 도시 구획상에서, 우체국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기반 시설이었다. 일례로 인천의 가무기좌(일본의 극장가) 인근에도 우편국(우체국)이 위치하고 있었고(김남석 2016, 7), 마산의 도시 주도권 쟁탈전에서도 우편국의 위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조선일보 1927c). 지도에서도 이러한 우체국의 위치는 주요한 기표 사항이기도 한데, 군산좌 역시 이러한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다. 정미소 역시 미곡 수출항으로 이름이 높은 군산항에서 중요한 기반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군산좌의 위치는 상징적이라 하겠다.

Figure 1\_ Map of Gunsan City, 1906



Source: Yoon 1985.

군산좌의 위치를 정밀하게 살펴보면, 군산좌는 관청이 위치한 중심부에서는 살짝 빗겨서 있고, 철도역에서 근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무래도 개항 후 군산은 조계지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1899~1903년 사이 일본인 거주 지역은 전주통에, 관청 지역은 북정구에, 상업 지역은 본정통에 배치되었고, 조계 외곽 지역에 조선인 거주 지역이 형성되었다(이원호, 김용기, 최종희, 이종성 2004, 101-103). 이러한 1900년대 군산 지형을 감안하면, 명치좌와 군산좌 두 극장은 모두 조선인 거주지(‘한국인 거주지’)를 배후에 끼고 입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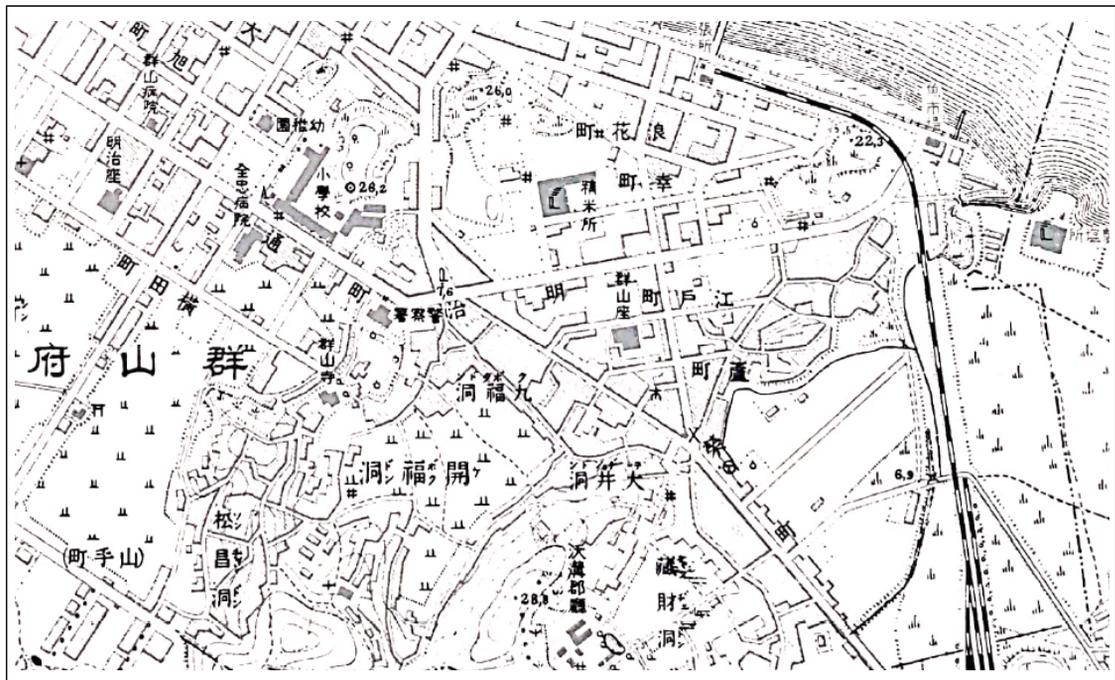
시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군산좌는 1899년 군산 이후 어느 시점에서 건립된 극장으로 추정되지만, 앞에서 살펴본 1906년 시점 이전의 지도(앞의 지도보다 이전 지도)에서 그 자취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06년 이후 지도 중에, 군산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남아 있다. 이 지도의 군산 실측 연도는 1916년 무렵이므로, 1910년대 초기 군산좌의 모습과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의 지도는 조선총독부가 대정 5~6년(1916~1917년) 사이에 실측된 군산의 모습을 담고 있다. 지도상에서 군산좌는 강호정에 위치하며, 개북동은 다소 떨어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1920~30년대 군산좌의 위치는 줄곧 강호정(전화번호는 117번)으로 표기되었는데(동아일보 1932), 이러한 정황과 지도의 상황은 일치하고 있다. 강호정은 조선인들이 집중적으로 주거하는 지역이었다. 강호정은 현재(2010년대) 죽성동에 해당하다. 군산좌의 옛 자리로 판단되는 현재 행정 주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죽성동 29-5번지로, 2019년 현재 동광한의원이 위치한 지역이다.

강호정은 위로는 신정, 좌측으로는 명치정, 아래로

Figure 2\_Surrounding Environment of Gunsanjwa



Source: Choseon Government-General 1917.

는 노정과 영정과 맞닿아 있고, 우측으로는 선창가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선창가에는 ‘째보선창삼거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째보선창은 군산을 대표하는 죽성 포구를 가리킨다. 강이 바다로 나오는 자리에 형성된 거대한 만이어서, 배의 접안에 용이하고 해풍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포구로 변창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향토문화전자대전<sup>1)</sup>). 당연히 유동 인구가 많고 어판장이 있어 극장의 건립 장소로 적합한 곳이기도 했다.

이제 지도를 바탕으로 과거 군산좌 일대의 환경을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Figure 3, 4> 참조).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소학교는 군산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고, 이 학교에서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삼각형 형상의 구역에 옛 군산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군산좌의 우측 지역에는 방사형 형상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시가지의 형상을 오래된 주거지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방사형 시가지는 철도를 끼고 형성된 구역이었다.

군산좌의 위치는 철도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 조선인 거주지와 시가지를 배후 지역으로 끼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극장 입지에 해당한다. 근대극 도입기와 일제 강점기 조선의 지역 극장은 대체로 철도(역)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역전 극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으며, 역과 항구가 겹쳐지는 공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부산의 극장가가 그러하고 인천의 극장 밀집 지역(애관, 표관, 가무기좌 등) 역시 동일했다. 군산좌는 이러한 전형적인 위치를 점유한 극장이라는 점에서 근대극 도입기의 극장 입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 2. 군산좌의 설립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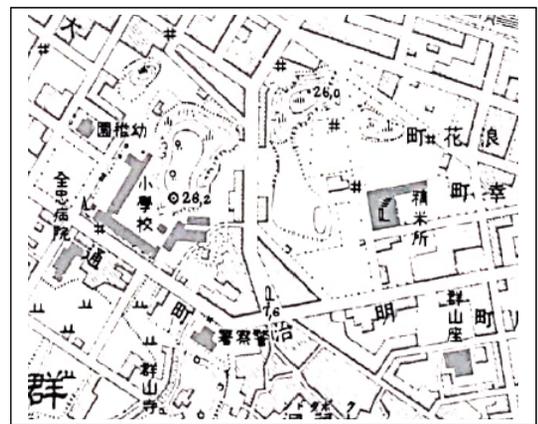
군산좌의 건립 시점은 1900년대 초반으로 여겨진다. 1929년 한 신문 기사는 그 해가 군산좌가 건립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기술한 바 있는데(중외일보 1929), 이러한 기술을 근거로 시간을 역산하면 1900년대가 군산좌의 설립 시기로 여겨진다. 1900년대(초)에 건립되었다면 이러한 기술은 시기상으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며, 1906년 지도에 그 위치가 표시

Figure 3\_ Location of Gunsanjwa in 1906 (No.17)



Source: Yoon 1985.

Figure 4\_ Scenery of the Gunsan Jwa area in 1916 (bottom right)



Source: Choseon Government-General 1917.

1) <https://terms.naver.com> (2019년 12월 20일 검색).

되는 점도 충분히 설명된다고 하겠다.

실제로도 1900년대에 설립된 전국의 지역 극장은 상당수에 이른다. 1903년 설립된 부산 최초의 극장으로 꼽히는 행좌를 비롯하여, 송정좌(1903년)와 인천의 가무기좌(1904년), 부산좌(1907년), 대구의 니시키좌(錦座)(1907년) 등이 1900년대에 건립된 대표적인 지역 극장이었다. 이 시기 건립된 극장 대부분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설립 운영되었다고 할 때, 군산에서의 극장 운영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군산좌는 1900~1905년 사이에 건립된 극장으로 간주하는 주장은 자료와 정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위의 기사에서는 군산의 유일한 극장이라고 평했기 때문에, 다른 극장이 생겨났거나 혼란을 일으킬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위의 군산좌 전경(<Figure 5> 참조)에서 주목되는 이 극장이 전형적인 가부키 극장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극장 외형으로 봉래좌(1910년대 개관), 대전좌(1910년대 대전을 대표하는 극장), 대구좌, 혹은 부산극장(1934년 개관) 등을 들 수 있다(김남석 2018, 68-131). 이러한 극장들의 외형으로 고려

할 때, 일본식 가부키 극장은 최초 창고형 극장 형태로 통영, 대구, 부산, 군산 등에 설립되었는데, 내륙/동남해/남해/서해안 지역에 고루 나타나는 이러한 분포를 통해 군산좌의 건축 형식이 통상적인 극장 외형을 따랐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항구에 세워진 극장으로는 일반적인 형태라는 잠정적 결론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겠다.

1920년대 중반 군산에는 극장 신축안이 발표되었다. 이른바 낡은 군산좌를 대체할 수 있는 극장을 명칭정에 설립한다는 것이 이 계획안의 골자였다. 그리

Figure 5\_ Gunsanjwa Scenery



Source: <http://gunsan.grandculture.net>

Figure 6\_ Construction of Theater in Gunsan Area(plan)

<p>群山에劇場新築 五萬圓豫算으로</p> <p>群山府民의娛樂機關인劇場群山座는古建物일뿐 아니라不完全한設備인外當時에對하여感不無計의改善의聲이高調에達한다最近に至りては群山座主鳥川氏外數人の發起로新株式の大劇場을建設하기로日下若準備中新築候補地는府の中央인明治町</p>	<p>군산에 극장 신축 오만원 예산으로</p> <p>군산부민의 오락기관인 극장 군산좌는 <u>고건물(古建物)일뿐 아니라 불완전한 설비인 까닭에</u> 시대에 지연한 감이 불무(不無)해야 개선의 성(聲)이 고조에 달하는 바 최근에 지(至)하여 군산좌주 도전(島田) 씨 외 수인의 발기로 신주식의 대극장으로 건설하기로 목하 착착 준비 중 신축 후보지는 부의 중앙인 명치정통(明治町通) 동척분공장(東拓分工場)의 부지를 선정하였다하며 신축비 총액은 약 5만원 예산이라더라(군산)</p>
---	---

Source: *Dong-A Ibo* 1926a.

고 이 신축극장은 대극장으로 기획되었다(朝鮮新聞 2016).

지금까지 군산좌의 사주는 島田元三郎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島田元三郎이 군산좌의 최초 설립 시점부터 극장 소유주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島田元三郎이 1920년대에 군산좌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증빙되고 있다.

<Figure 6>의 기사에서는 군산좌의 신축(안)을 이끈 이는 ‘도잔’ 외 수 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도잔’은 ‘島田元三郎’을 가리킨다. 1920년대 중반 島田元三郎은 군산좌의 사주였으며(朝鮮新聞 1924), 1932년 군산좌가 화재로 전소할 때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주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 신축안은 군산좌의 폐기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군산좌의 탄생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관련 기록 속에서, 과거의 낡은 군산좌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군산좌로서의 군산극장이 등장했다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군산좌와 군산극장은 엄연히 별개의 극장이었다. 극장의 크기나 운영 방식도 다른 극장이었고, 무엇보다 두 극장은 동시공간대에 경영된 사실도 확인된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군산좌 전소 사진이다.

<Figure 7>은 처참한 잔해로 남은 1932년 당시 군산좌 전소 이후의 풍경이다. 군산좌가 1930년대까지 존속했으며 군산의 극장으로 인지되고 있었다는 증거에 해당한다.

군산좌는 화재로 전소되었고, 일제 강점기 지역 극장의 역사에서는 잠시 사라졌다. 당시 기사를 참조하면 전소된 군산좌를 ‘그 전 극장’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즉 새롭게 개관한 신축극장이 아닌 이전 군산좌가 전소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한편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군산좌주 島田元三郎은 극장으로 쓰던 군산좌의 집을 오래동안 묵혀 비어 두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다시 말하면 군산좌는 화재 당시에는 극장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당초 군산좌가 누군가의 ‘잡이’라는 표현에 걸맞은 건물이었다는 의미도 담보하고 있다. 결국, 군산좌는 애초부터 극장으로 설비된 건물이었다기보다는 도전원삼량이 소유한 사저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극장으로서의 불비할 수밖에 없었던 공간이지만 초기에는 극장 대용 공간으로 활용해왔던 셈이다. 이른바 창고 극장이거나 가설극장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군산좌는 이른바 창고형

Figure 7 \_ Panoramic view of Gunsanjwa Burned by Fire



Source: Maeil Sinbo 1932.

극장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 초기 군산좌는 전문적인 극장 설비를 완전하게 갖춘 극장이었다기보다는 일반 건물에 비해 크고 높은 천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극장 용도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건물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신축 극장이 운영된 이후에는 그 효용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른바 창고형 극장은 전국 곳곳에서 그 실체가 확인되는데, 인천의 최초 극장 협률사나 울산의 역전 울산극장(신축 이전) 등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동아일보 1936)하며, 군산 인근에 위치했던 논산좌 역시 임시 가설극장으로 운영된 창고형 극장이었다(김진구 1929).

그렇다면 군산에서 새로운 신축극장을 지으려 한 이유가 어느 정도는 설명될 수 있겠다. 창고형 임시극장으로 운영되던 군산좌를 보다 완비된 시설을 갖춘 극장으로 탈바꿈하고자 경영자와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공유되고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군산좌를 대체하는 극장이 생겨났고, 기존 군산좌는 다시 누군가의 집으로 돌아가서 부분적으로만 극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군산좌의 경영 공백이 생겨났다면, 즉 군산좌가 상설극장이 아닌 형태로 바뀌었다면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신축극장 군산극장이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선 시점은 대략 1929년~1930년경으로 확인되는데, 기 군산좌 역시 1931년까지 그 운영이 확인되고 있다(동아일보 1931). 그러니까 신축극장 군산극장과 기 군산좌는 2~3년 정도(1929~1932년) 함께 운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1932년 화재 무렵에 기 군산좌의 운영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건대, 위 기사의 내용에서 한동안 비어 있었다는 기간은 1931~1932년경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러나 군산좌는 1920년대 군산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활발하

게 활용되다가, 1929~1930년에는 대체 극장과 병행되어 운영되었고, 1931~1932년 휴지기를 거쳐, 1932년에 전소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 III. 군산좌의 공연 활동과 활용 용도

#### 1. 군산좌 공연 행사와 활용 용도

군산 지역에서 군산좌는 유치원 후원 행사, 청년회 모임(군산청년회), 부민대회, 음악연주, 활사대회(영화 상영), 토착 영화 단체(군산영화회, 칠성회)의 영화 상영, 순회극단(토월회, 배구자일행 등)의 방문 공연, 토착 예술단체(군산예술협회, 우리예술협회)의 무대 공연 등이 이루어진 군산의 대표적인 극장이었다.

1914년 12월 유일단은 군산좌를 방문하여 공연하였다(매일신보 1914b). 당시 이기세의 유일단은 1913년 세말(歲末)부터 장기 지역 순회공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매일신보 1914c), 1914년 12월 전주에서 순회 공연을 시행했다(매일신보 1914a). 전주 공연에서 유일단은 <단장록>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공연하였는데, 전주 공연 이후 군산으로 향하여 15일간 공연했으므로 군산(좌)에서도 <단장록>은 주요 레퍼토리로 상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1914년 당시 유일단이 공연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은 佐藤紅録의 <처>를 비롯하여 <불여귀(不如歸)>, <자기(自己)의 죄(罪)>, <코르시카의 형제>, <부활>(島村抱月 각본)을 포함하여 <비파성(琵琶聲)>과 <상사린(相思隣)>(이상 1912년 작품), <혈의 누>(1913년)과 <오호천명> 그리고 <장한몽>(상권과 중권)(이상 1913년 작품) 등이었는데(김남석 2013, 452-469), 이러한 레퍼토리에 <단장록>을 추가하여 15일간의 군산좌 공연에 임했을 것으로 보인다.

1917년에는 일본 극단이 조선을 방문하여 군산좌에서 <카츄샤>를 공연한 바 있다(부산일보 1917a). 島村抱月(시마무라 호게쓰)과 松井須磨子(마쓰이 스마코) 일행이 1917년 군산좌에서 공연한 바 있었는데, 당시 공연을 대표하는 작품이 <카츄샤>였다. 이 공연은 당시 군산뿐만 아니라 조선 전역을 열광시킨 공연 작품이기도 했다(朝鮮時報 1917; 부산일보 1917d). 예술좌의 조선 공연은 1915년에 최초 시작되었고(부산일보 1915), 1915년에 이어 시행된 1917년 공연은 군산좌 공연 이후 부산으로 이어져 1917년 7월 8일부터는 부산좌에서 재개되었다(부산일보 1917c).

일단 이러한 사례는 이러한 군산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순회공연 루트를 확인시키는 주요한 사례라 하겠다. 예술좌의 공연은 군산과 부산이라는 개항장이자 일본인 집중 거주지에서 공연되었고, 이러한 공연 상황은 조선 전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야 한다. 당시 순회공연은 지역의 주요 극장을 연계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외국(주로 일본)에서 방문한 극단의 경우에는 군산(좌) 공연 이후 연계되는 지역 중심지(극장)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17년 군산좌에서 시행된 또 하나의 공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공연은 緣家一行의 군산좌 방문 공연이었는데, 이때 군산좌에서 상당 기간 공연하였다(부산일보 1917b). 군산의 인구를 감안할 때, 녹가 일행의 공연은 상당한 장기간의 공연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은 군산(좌)에서 장기 공연이 가능했던 이유를 상정하게 만든다. 군산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도시였지만, 인근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중요한 위상을 점유하는 도시였다. 즉 인근 도시로의 이동, 방문이 수월한 지리적 이점과 교통의 편의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이 공연 다음 일정이 이리좌였다는 사실도 주목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1910년대 군산좌와 이

리좌는 군산과 익산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인지되고 있었으며, 순회공연단은 자연스럽게 두 극장을 연계하여 공연(이동)하는 순회공연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예술좌 순회공연에서도 나타나듯, 일본의 극단은 군산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연계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군산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공연지로 더욱 강도 높게 부상할 수 있었다. 緣家一行 역시 군산 다음에 이리 공연을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두 극장은 전라북도과 충청남도 일대에서 공연 콘텐츠의 이동 경로를 뒷받침하는 극장으로 폭넓게 인지되어 유용하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의 극단을 중심으로 군산좌에서의 공연 활동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산좌는 1920년대에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극장이었다. 1920년대 초반 순회공연을 시행한 갈뚝회를 비롯하여, 토월회, 취성좌, 배구자 일행, 화중선(花中仙) 일행, 고학생이 창립한 문예단, 여자 신파극 동광단, 포외학생단, 우리예술협회, 백연회, 군산칠성회(신극 연구), 군산영화회, 임수호영화직영(林守浩映畫直營) 등이 군산좌에서 공연하거나 관련 행사를 개최한 바 있었다(동아일보 1921; 1922a; 1923a; 조선일보 1926b; 1926c; 1926d; 1926e; 1927b; 1928a; 1928b; 1928c; 1929). 이들 단체 역시 대부분 지역 인근 극장—가령 이리나 전주—과 연계하여 군산좌 공연을 추진한 경우였다.

한편, 군산좌에서는 연극 공연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이 펼쳐진 바 있었다. 대표적으로 활동사 진대회, 소년소녀가극대회, 소인극 행사, 예기대회, 야담대회, 음악(가극)연주, 신문사 기념 대회 등이 군산좌에서 개최된 바 있다(동아일보 1926b; 1928; 매일신보 1922; 조선일보 1921; 1923c; 1925a). 이 중에는 일본인 공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사례로 연예대회(부산일보 1925)와 영사대회가 들 수 있다. 이처럼 군산좌는 1920년대 군산에서 시행된 각종 문화 예

술 행사 중 상당수 행사가 진행되는 공연장으로 활용되었다(조선일보 1923b).

이러한 행사 중에는 지역 내 자체 행사로 펼쳐진 행사도 포함되는데 각종 부민대회(시민대회)를 비롯하여 동포위문회(수재 의연 행사), 동정회, 환영 행사 등이 그것이다(조선일보 1923a; 1926a; 1927a). 이러한 행사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사회적 활동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사였다. 이러한 행사들이 군산좌에서 개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애환이 해소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산좌는 군산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자 공공재였다고 해야 한다.

## 2. 군산좌에서의 세부 공연과 내부 정경

군산좌의 외부 사진은 약간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군산좌의 내부 정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굴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군산좌의 내부 풍경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련 연구와 해당 분석에 상당

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굴할 수 있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영신학원(永信學院)은 군산부 개복동 소재 학교로, 당초 개복동 교회와 기독교 청년회의 발의로 건립된 학교였다(동아일보 1922b). 1920년대 초에는 영신학원 내에서 소녀가극(이리기독교교회 경영 광희여숙 공연)을 공연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23b). 이러한 초창 경험은 곧 영신학원 자체 소녀가극 제작으로 이어졌다(동아일보 1925b).

<Figure 8>은 군산좌에서 공연한 영신학원(개복동 소재) 주최 가극(공연) 풍경이다. 이 사진이 주목되는 것은 배경으로 군산좌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매우 부분적으로만 사진에 반영된 무대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사진이 군산좌 내부를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이다.

전반적으로 무대 크기는 무대 협소한 편이며, 극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형국이다. 군산좌가 島田元三郎의 집(창고)과 같은 건물이었으며 각종 시설이 불비했다는 당시 견

Figure 8\_ Youngshin Academy Performances Performed at Gunsanjwa



Source: Choseon Ilbo 1925b.

**Table 1** \_Gunsanjwa Performance List

No.	Example(Genre)	Performer
1	Presiding	Park Sang-geon
2	Singing and Dancing	A Girl Dancer
3	Mandolin Performance	Sim Jong-hak
4	Violin Solo	Kim Seol-am
5	A Song of Wandering(‘방랑의 노래’) (Regular Performance)	
6	A Charity Event	

Source: Dong-A Ilbo 1925a.

해를 곁들이면, 이 극장은 극장으로서의 조건을 제대로 갖춘 공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사진은 이러한 당대 평가와 현재 추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다.

영신학원의 군산좌 공연은 1925년 3월에도 시행된 바 있다(동아일보 1925a). 당시 공연 예제를 보면 <Table 1>과 같다.

이러한 행사 진행에서 주목되는 바는 음악과, 무용 그리고 연극 장르의 공존이다. 다만 가극회에서 음악 연주와, 무용(가무) 실연이 연극 공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는 비단 영신학원의 사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당대의 통념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사 진행은 일반적이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특이하거나 예외적이라고만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군산좌라는 일본인 극장에서 조선인 학교의 공연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금을 모금한 점은 기억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만큼 1920년대 중반 군산좌(소유주)의 국적을 넘어서서 지역민 공유 개념의 극장으로 사용되는 실례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극장 시설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사는 그 자체로 극장의 크기를 감안한 활동이라고 하겠다. 대부분 단출한 등장인물 혹은 연주자를 대동하는 공연이라고 할

때, 군산좌에서의 활동은 작품 크기와 출연 인원의 압도적인 제지나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 IV. 군산좌의 문화적 역할과 지역 거점으로서의 위상

##### 1. 근간 시설의 확충에 따른 문화적 기능 확대와 위상 강화

1900년대 군산은 일본인의 집단 거류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00년대 6개 내외 개항장 중에서 군산은 마산 등과 함께 비교적 협소한 편에 속하는 거류지 면적만 보유하고 있었음에도(김영정, 소순열, 이정덕, 이성호 2006) 무역을 위해 유입되는 초기 일본인들의 수는 급증했다(군산부 1917). 이들은 주로 상인들이었고, 앞의 1900년대 군산 지도에서 확인되듯 군산 북쪽 권역(항만)을 중심으로 정착하였다(김태영, 이광노 1988, 114-117).

이후 군산이 확장되고 변화하면서, 군산좌는 확장되는 도심의 중심으로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군산좌의 위치는 개항장으로 개발된 군산의 북부(주로 일본이 거주지와 관청 거리)와 철도 부설로 인해 새롭게 각광받는(부도심으로 성장) 군산역 주변의 동남부의 사이에 위치했다. 거주공간의 분화는 상대적으로 두 지역을 섭렵 포섭할 수 있는 군산좌의 물리적 위치와 지역적 장점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조선/일본 거주 공간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원도연 2016, 156), 군산좌는 두 거주 지역의 이점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이러한 군산의 지리적/도시적/역사적 변모와 도시 교통/시설/기반의 확충은, 군산좌의 문화적 역할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확대해나갔다. 본문에서도 논증한 대로, 군산좌는 조선인의 극장으로 점차 용도가 변경

되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군산좌는 일본인이 선호하는 극장이기도 했지만 이와 동시에 조선인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극장으로 변모해나갔다. 1920년대 군산좌에서 개최된 다종다양한 행사는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인 창립 학원이었던 영신학원의 공연 콘텐츠와 그 내역은 조선인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현황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인들은 군산좌를 중심으로 관극, 제작, 창작, 교육 등의 행사를 기획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과 행사의 영역에서 군산좌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이것은 1900년대부터 군산좌가 지역의 거점 극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조선인과의 협업, 공유 가능성을 제고했기 때문이다. 1900년대부터 조선에 자리 잡은 극장은 부산의 행좌, 송정좌, 부산좌 등과 대구의 니시극좌, 인천의 가무기좌 등 그렇게 많은 극장은 아니었다. 군산좌는 역사적 이력을 통해 조선인들과의 공존 가능성을 오랫동안 타진하고, 그 결과 조선인들의 공유 활동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이것은 군산좌가 해체되고 군산극장이 들어서는 시기에 서도 확인된다. 군산 지역민들은 군산좌를 대체할 수 있는 극장을 요구했고, 그것은 군산좌가 낡고 미비한 시설로 인해 '필요하지만 낙후된 시설'로 전락했기 때문이지, 군산좌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은 아니었다. 더구나 군산극장이 설립된 이후에도 군산좌에 대한 관심과 활용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도 않았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도시들은 일본인들의 필요와 이주에 따라 그 발전 정도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흔했다. 군산은 일찍부터 개항장으로 손꼽혔고, 이후 미곡 생산과 운반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면서 주요 도시로 격상되었다. 자연스럽게 군산 내에 일본인이 이주 또한 증가했고, 이에 보조를 맞추어 조선인들의 증가와 도시 확대도 왕성하게 추진되었다.

도시의 확대는 문화 시설과 편의 시설의 확대를 불러오는데, 군산좌는 군산의 인구 폭증과 역량 강화로 인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며 지식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이 그것이다. 조선인들의 경우에는 일제의 식민 통치 하에서 자율적이고 문화적인 주체성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극장 관람과 각종 공연 콘텐츠의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는데, 군산좌는 그 기반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군산극장의 설립(대체)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즉 군산좌는 시설 미비로 인해 군산극장으로의 변모(대체)를 기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산고 끝에 군산극장이 탄생했고 1920년대 후반 경영에 들어섰지만, 군산좌는 당장 폐쇄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동안 군산극장과 병행하여 운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시설 미비로 인해 교체되기는 했지만, 군산좌가 군산의 주민(상당수는 조선인)과 공존하고 협력을 공유한 결과로 판단된다.

물론 군산좌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인 사주의 결정에 따르기 마련이었겠지만,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는 여전히 군산좌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낙후되어 시설이 공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산좌보다는 군산극장에서 외부 콘텐츠가 공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군산극장에서는 다양한 외부 콘텐츠의 유입이 활성화되는 성향을 보였다. 반면 군산좌는 지역민들의 오래된 접근도로 인해 여전히 지역민의 선호를 받은 흔적을 드러낸다. 1929년의 공연, 행사 등의 개최 여부는 이를 보여준다. 즉 군산좌는 군산극장이라는 강력한 대체 극장을 맞이했음에도, 당장 사그라지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역민과의 친숙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 2. 이동의 편의성과 유동의 문화 콘텐츠:

### 군산과 전북 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

군산좌의 성장과 문화적 필요를 깊숙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군산이 지닌 지역적 이점과 당시 교통 상황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산은 1907년 전주와 전군가도(全郡街道)를 개통했을 뿐만 아니라(이원호, 김용기, 최종희, 이종성 2004, 97), 1910년 무렵에 이미 군산선 측량 사업에 돌입했으며, 이웃 지역 이리의 교통망 발전으로 인해 그 지역적 편의성이 더해지는 상황이었다(익산시 2018).

1912년 익산(역)에서 분기하여 금강 하구 군산항에 이르는 24.7km 길이의 철도 군산선이 개통되면서, 군산과 익산(당시 이리)의 지역적 연계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익산은 호남평야의 중앙에 위치하여 경제적 배후지를 지니고 있었고 이를 호남/전라/군산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 교통의 중핵 도시였다(익산시 2018). 전주뿐만 아니라 이리와의 철도 교통이 더욱 다각화되자, 군산의 교통의 편의성을 증대되었고 이로 인해 외부 문물과 인사의 유입, 소통, 전파가 한결 수월해졌다.

1930년대까지 능동적으로 확대된 이 지역 철도 노선은 이러한 상황을 증빙한다고 하겠다. 항만 시설 위주로 서해 쪽에 치우쳐 있던 군산은 익산과의 교통 편의성이 증가하면서 내륙 지역과의 교통 능력이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문화적 수용/전파 역할 역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1930년대 조선의 철도 교통망을 참조하면 주 간선철도로 이어져 내륙으로, 혹은 한반도의 위(경성)/아래(광주)로 향하는 길을 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 교통 인프라는 군산의 궁벽한 입장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고, 본래부터 장점

이던 해상 운송과 교통 능력 역시 다각화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군산의 도시 내외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체 문화적 성장을 유도했고, 인근 지역과 전북 일대의 문화(확산)적 추동력을 생성하기에 이른다. 군산 내의 조선인들은 일찍부터 일본 관련 공연물의 유통과 관극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러한 관극 경험은 자신들(조선인들)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감상하는 데에 문화적 자산으로 작용한다. 군산좌의 활발한 사용은 그 증거이다.

1910~1920년대 조선의 대표적인 극단(공연 단체)이 군산좌를 방문한 상황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초기 신파극단을 중심으로 한 공연 단체의 증가와 확대는 그들의 콘텐츠(연극, 기예, 춤, 심지어는 영화)를 수용할 관객을 찾아 나서야 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한정적인 경성의 관극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관객의 중요성은 날로 커졌다. 많은 극단들이 편리해지는 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객을 찾아가는 순회공연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관객 창출 때문이었다.

경부선이 개통되고 인근 도시가 발달하여 일찍부터 주요 순회 공연처로 인정받은 경부선 인근 도시들과 달리 조선의 서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교통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군산과 이리를 중심으로 철도, 전군가도 등이 개설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접근 가능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이용상, 정병현 2018, 708-710). 군산좌는 이러한 서선 공연에서 최초의 중심지였고, 뒤이어 설립되는 이리좌 등과 함께 전북 지역을 선도하는 문화(공연 예술)의 중심 거점으로 인식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군산 지역민들은 조선의 최신 공연 콘텐츠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와 개성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군산좌가 설립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극장을 중심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전북 지역(특히 개항장 군산)에서는 영화 상영과 관람, 여타 문화 콘텐츠의 수용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결국 군산좌의 영향력은 훗날 전북 영화 생산의 자생력을 성장시키는 문화적 원동력으로도 작용했다. 일제 강점기 군산좌의 저력은 지역의 영화 생태계를 창조하는데 일조했고, 주변 지역 극장이 점진적인 설립을 추동하였다. 더구나 군산좌의 존재감과 운영 상황은 전북이라는 특유의 지역 정서와 결합하여 자생적인 영화와 콘텐츠 생산 동력으로 기동했다. 군산좌는 군산 극장으로 대체되었고, 군산극장은 해방 이후에도 군산의 핵심 극장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비록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 깊게 논의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전북의 자생력의 근원이 군산좌라는 물리적/지역적/극장사적 시초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 V. 결론을 곁하여: 군산좌의 위상과 역할

군산좌는 개항장 군산을 대표하는 극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산 일대의 지역에서 문화적 유통(콘텐츠의 이동)과 확산을 지지하는 중요한 거점 공간이었다. 문화의 전파를 일종의 흐름으로 간주한다면, 군산좌는 경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 위주의 문화 콘텐츠의 흐름을 서선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문화적 물꼬의 역할을 수행했다.

일제 강점기나 현재 시점에서도 경부선과 경평선을 이용한 콘텐츠의 이동은 현실적으로 편리하기 이를 데 없었고,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확장과 인구의 집중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이를 데 없었다. 흥행에 유리했고 이동에도 유리했다. 반면 대전에서 치우쳐 경부선에서 빗겨선 도시들, 즉 공주, 논산, 전주, 정읍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동과 흥

행에서 불리한 형편이었다.

하지만 군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감쇄시킬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 진입이 다소 난감하기는 하지만, 그곳에 진입했을 경우 큰 항구와 상업 시설을 바탕으로 한 유동 인구와 흥행 호재를 확보할 수 있었다. 더구나 군산에서는 논산이나 전주, 정읍, 더 나아가서 광주, 목포로 이어지는 루트를 탈 수 있었다.

순회극단이나 흥행업자 혹은 콘텐츠의 이동을 계획하는 문화 관련자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하기는 하지만 배후 흥행지(권역)를 갖추고 있고 새로운 흥행 루트를 내장하고 있는 군산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군산을 이동 루트로 간주하는 이들에게는 이 도시 내에서 공연을 대표할 수 있는 극장이 필요했고, 오랫동안 군산좌는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군산좌는 1900년대 초반에 건립된 극장이었던 만큼, 1900년대 조선 전역에 극소한 극장 인프라 중에서 주목되는 극장이 아닐 수 없었다. 부산과 인천 그리고 대구 등을 중심으로 편중되게 분포했던 극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군산좌는 군산 일대의 지역민에게 선구적이고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 아닐 수 없었다.

일찍부터 흥행업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곳을 이용한 공연 내력 역시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었다. 전북 인근에서는 군산좌의 설립이 매우 이른 시기여서—1910년대에 그 모습을 드러낸 공주의 금강관이나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운영된 논산극장에 비하면 더욱 그러하다—1900~1910년대 군산좌의 비중과 위상은 매우 높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산좌의 입지는 여느 도시의 대표적인 극장이 그러하듯, 철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경부선 같은 중심 철도 라인은 아니었지만, 군산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분명 철도였다. 그러니 철도 주변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각종 인프라가 몰려드

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했다. 군산좌는 이러한 철도 중심 도시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건립되었고, 이를 통해 외부 도시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내부 지역민의 이동과 관람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었다.

군산좌의 위치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항만 시설이다. 소위 말하는 꾀보선장을 인근에 끼고 있는 입지로 인해, 군산좌는 해상 교역로와도 일정한 관련을 맺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입지상의 장점은 조선인 거주지를 배후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군산좌는 일본인 사주에 의해 운영된 극장이었지만, 운영 목표는 일본인 관객을 위한 일본 콘텐츠 상연에만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 상당한 공연 레퍼토리나 상연 콘텐츠는 조선인의 구미와 취향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산좌의 운영 방침은 외부 방문 극단이나 조선 콘텐츠의 유입과 상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유했다. 조선인들은 군산좌를 일본인 극장으로 치부하지 않았고 군산좌에서의 관람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군산좌 초기에는 이 극장에 필적할 극장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 군산좌의 입지와 운영 방식은 해당 극장이 지역 상호 간 문화 교류의 흐름을 연계하고 그 교류를 전복 지역전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것인 군산좌가 일제 강점기 초기에 군산과 인근 지역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 즉 문화적 역할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러한 군산의 입지와 배후 인프라를 활용하는 극장들이 속속 늘어났다. 군산 지역에서도 여러 종의 극장이 생겨났지만, 군산 인근 지역에서 극장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전술한 공주의 금강관이나 논산극장을 비롯하여, 이리의 이리좌(1910년대), 전주의 전주극장(1910년대) 등이 대표적이었다(부산일보 1917e; 1918). 군산 내의 희소관도 1920년

대에 건립된 극장이었다. 이러한 극장의 새로운 등장은 군산좌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켰고, 시간이 더 흐르면서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축 여론이 비등했다.

1920년대 중반 극장 신축안이 발표되었고, 신축 극장을 대극장 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공표되었다. 군산이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군산 대표 극장의 이미지를 잇기 위해서라도 신축 극장은 기존 극장의 문제점과 낙후성을 철저히 보완할 수 있는 극장이어야 했다. 더구나 군산좌는 1900년대 극장답게 가부키 극장이었기 때문에, 1920~30년대 현실에서 극장 건립 방향과는 상당히 어긋나 있는 상태였다.

극장 건축은 진행상 지지부진한 시기를 지나야 했다. 새로운 극장이 건립되었지만 군산좌가 단번에 폐기되지 않는 시기도 거쳐야 했다. 창고형 극장이었을 가능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운영되었던 관례에 힘입어 전소되는 시점까지 자진 폐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군산의 극장사에서 군산좌가 지니는 비중은 상당했다고 해야 한다.

실제로 군산좌에서 공연된 행사와 활용 용도를 보면, 이 극장이 오랫동안 군산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1900년대부터 확인되는 외부 공연 단체의 방문 현황도 그러하고, 일본 극단의 순회 상황도 그러하며, 무엇보다 군산 지역의 각종 단체가 군산좌를 활용한 사례도 그러하다. 그러한 공연 사례 중에는 군산과 이리(익산) 등의 인근 지역 중심으로 한 순회 공연의 지역별 사례도 포함된다.

본론에서도 언급했지만, 군산좌를 공연한 극단과 대표 연예인들의 면모는 화려하고 또 광범위하다. 조선을 대표하는 연예인들이 서선 공연을 시행했을 때 가장 공연에 적합한 도시 중 하나였던 군산을 선택했고, 그중에서 군산좌 공연을 감행하면서, 군산좌는 오히려 문화/공연 콘텐츠의 풍족을 경험해야 했다. 이것은 군산이라는 도시적 입지, 군산좌라는 오래된 극장

(명성)의 운영,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 인프라, 그리고 문화 창달과 수용에 대한 다양한 욕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군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연구 방법은 여러 각도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 시설과 상업 역량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해당 도시의 역량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작업에 일정한 한계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군산을 군산좌를 통해 살펴보는 시각은 기존의 도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 군산좌는 미곡 수탈의 전진 기지로 알려진 개항장 군산과 그 운명을 함께 한 극장이었고, 그로 인해 그 수익과 혜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시설이었다. 동시에 그 영고성쇠를 통해 품어야 했던 지역민의 울분과 좌절을 달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중 하나였다. 아직은 군산좌에서 시행된 공연/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을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해도, 궁극에는 그러한 활동들이 군산이라는 도시와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역민의 정서적 치유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군산좌는 군산의 상처와 함께 태어났고, 그 환부를 배경으로 성장했으며, 결국에는 그 고통을 치유하는 데에 역점을 둔 기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1. 군산부 편. 1917. 군산부세요람(群山府勢要覽). 군산: 군산부. Kunsan-bu. 1917. *A General Survey of a Kunsan*. Kunsan: Kunsan-bu.
2. 김남석. 2013. 이기세의 유일단 연구. *한어문교육* 29집: 451-472.  
Kim Namseok. 2013. A study on the history of Lee gise's Yuildan.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9: 451-472.
3. \_\_\_\_\_. 2016. 조선의 개항장에 건립된 인천 가무기좌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46집: 5-18.  
\_\_\_\_\_. 2016. A study of Gamugijwa as Japanese theater built in Inche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46: 5-18.
4. \_\_\_\_\_. 2018. 조선의 지역 극장. 서울: 연극과 인간.  
\_\_\_\_\_. 2018. *Local Theaters of Korea*. Seoul: Yeonguggwainkan.
5. 김영정. 1995. 일제시대의 도시성장-군산시 사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37-150.  
Kim Youngjeong. 1995. Colonial urban growth in Korea: The case of Kunsan Cit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ngress*: 137-150.
6. 김영정, 소순열, 이정덕, 이성호.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공간 경제 문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Kim Youngjeong, So Sunyeol, Lee Jungdeok and Lee Sungho. *The Formation and Change of Gumsan, a modern port city: Space Economy Culture*. Paju: Hanul.
7. 김진구. 1929. 야담남국행(野談南國行)(2). *동아일보*, 12월 4일, 4면.  
Kim Jingu. 1929. YadamNamgukhang(2). *Dong-A Iibo*, December 4, 4P.
8. 김태영, 이광노. 1988. 한국 개항장의 외국인 연구(3): 목포 및 군산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권, 5호: 109-117.  
Kim Taiyoung and Lee Kwangno. 1988. A study on the foreigners' residential buildings of an open port in Korea: Mokpo and Kunsan port.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4, no.5: 109-117.
9. *동아일보*. 1921. 군산의 갑둑극 기부금이 4백원. 8월 29일, 3면.  
Dong-A Iibo. 1921. Kunsan Galdop-geuk, a donation of 400 won. August 29, 3P.
10. \_\_\_\_\_. 1922a. 고향생(苦學生)의 문예극. 8월 8일, 4면.  
\_\_\_\_\_. 1922a. A literary play of student under adversity. August 8, 4P.
11. \_\_\_\_\_. 1922b. 영신학원 후원회. 9월 1일, 4면.  
\_\_\_\_\_. 1922b. Youngshin Academy Aid Association. September 1, 4P.
12. \_\_\_\_\_. 1923a. 포와학생단(布哇學生團) 군산에도 성황. 8월 15일, 4면.  
\_\_\_\_\_. 1923a. Powa Student Group, a successful performance in Gumsan. August 15, 4P.
13. \_\_\_\_\_. 1923b. 소녀가극회 흥행. 10월 6일, 4면.  
\_\_\_\_\_. 1923b. Success of a girl's opera. October 6, 4P.

14. \_\_\_\_\_. 1925a. 가극대회 성황. 3월 22일, 3면.  
\_\_\_\_\_. 1925a. Drama Performance. March 22, 3P.
15. \_\_\_\_\_. 1925b. 경제 보충 목적 영신여교가극회. 3월 17일, 3면.  
\_\_\_\_\_. 1925b. Youngshin Women's Theater Association for Economic Supplement. March 17, 3P.
16. \_\_\_\_\_. 1926a. 군산에 극장신축(劇場新築) 오만원 예산으로. 12월 19일, 4면.  
\_\_\_\_\_. 1926a. Construction of a new theater in Gusan with a budget of 50,000 won. December 19, 4P.
17. \_\_\_\_\_. 1926b. 기생 연극 성황 군산좌에서 상연. 2월 4일, 4면.  
\_\_\_\_\_. 1926b. Gisaeng Play in Kunsan Jwa. February 4, 4P.
18. \_\_\_\_\_. 1928. 경비엇고저 가극회 개최 군산 신흥학원서. 12월 13일, 3면.  
\_\_\_\_\_. 1928. Gageukhoe held at Gusan Shinheung Academy. December 13, 3P.
19. \_\_\_\_\_. 1931. 남조선 야담 순방 엽신 가육. 5월 17일, 3면.  
\_\_\_\_\_. 1931. South Korea Performance Tour 6th. May 17, 3P.
20. \_\_\_\_\_. 1932. 작일 군산에 대화재 11 가옥 전반소. 3월 9일, 3면.  
\_\_\_\_\_. 1932. Yesterday 11 large-scale houses burned down in Gusan. March 9, 3P.
21. \_\_\_\_\_. 1936. 울산극장 문제. 4월 9일, 4면.  
\_\_\_\_\_. 1936. The Matter of Ulsan Theater. April 9, 4P.
22.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san.grandculture.net> (2019년 12월 20일 검색).  
Digital Gusan Grandculture. <http://gusan.grandculture.net> (accessed December 20, 2019)
23. 매일신보. 1914a. 전주의 유일단. 12월 10일, 3면.  
Maeil Sinbo. 1914a. Yuildan in Jeonju. December 10, 3P.
24. \_\_\_\_\_. 1914b. 군산의 유일단 일행. 12월 15일, 3면.  
\_\_\_\_\_. 1914b. Yuildan in Gusan. December 15, 3P.
25. \_\_\_\_\_. 1914c. 유일단이 좋은 평단. 2월 3일, 3면.  
\_\_\_\_\_. 1914c. A a Good Review of Yuildan. February 3, 3P.
26. \_\_\_\_\_. 1922. 오늘 전조선순회활동사진회. 4월 22일.  
\_\_\_\_\_. 1922. Today, Jeon Joseon Circulation Motion Picture Contest. April 22.
27. \_\_\_\_\_. 1932. 군산에 우부대화. 3월 9일, 7면.  
\_\_\_\_\_. 1932. Another fire in Gusan. March 9, 7P.
28. 부산일보. 1915. 수마자(須磨子)와 포월(抱月) : 동경예술좌 일행 경성에. 11월 8일, 1면.  
Busan Ilbo. 1915. Sumaja and Powol. November 8, 1P.
29. \_\_\_\_\_. 1917a. 군산좌의 수마자(須磨子). 7월 3일, 5면.  
\_\_\_\_\_. 1917a. Sumaja in Gusanjwa. July 3, 5P.
30. \_\_\_\_\_. 1917b. 이리좌의 녹가 일행. 7월 3일, 5면.  
\_\_\_\_\_. 1917b. Noga theater in Irijwa. July 3, 5P.
31. \_\_\_\_\_. 1917c. 본일부터 부산좌에서 예술좌의 공연물. 7월 8일, 4면.  
\_\_\_\_\_. 1917c. Starting today, an art troupe will perform in Busan Theater. July 8, 4P.
32. \_\_\_\_\_. 1917d. 예술좌의 잎[お葉](송정수마자(松井須磨子)). 7월 11일, 4면.  
\_\_\_\_\_. 1917d. Leaf of art troupe. July 11, 4P.
33. \_\_\_\_\_. 1917e. 희로(嬉路)군 당선 피로. 7월 3일, 5면.  
\_\_\_\_\_. 1917e. Announcing the election of Mr. Heero. July 3, 5P.
34. \_\_\_\_\_. 1918. 전주극장 부활 설치 협의: 내선인 공동주식으로 경영. 1월 6일, 5면.  
\_\_\_\_\_. 1918. Jeonju Theater Resurrection Installation Consultation. January 6, 5P.
35. \_\_\_\_\_. 1925. 수해의연모집 군산연예대회: 부산일보사 군산 지사 주최로 26일 밤 군산좌(群山座)에서 거행. 7월 26일, 4면.  
\_\_\_\_\_. 1925. Kunsan Yeonye Contest for raising subscriptions for relief. July 26, 4P.
36. 원도연. 2016. 근대 식민지 경험의 탈각과 변용. *지역사회연구* 24권, 4호: 151-173.  
Won Doyeon. 2016. Exuviation and acculturation of modern colonial experience: Case of Gusan City.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4, no.4: 151-173.
37. 위경혜. 2010. 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2권: 32-75.  
Gyeong Hae Wee. 2010. The placeness of movie theaters in colonial Korea: The case of the City of Kunsan, Chula Province. *Daedong Mumbwa Yeon'gu* 72: 32-75. <http://doi.org/10.18219/ddmh..72.201012.35>
38. 윤정숙. 1985. 개항장과 근대 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군산항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2호: 74-99.  
Yoon Jeongsuk. 1985. A historical geographic study on the

- open port and the formation of modern cit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2: 74-99.
39. 이용상, 정병현. 2018. 익산의 철도교통과 지역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21권, 7호: 708-710.  
Lee Yongsang and Chung Byunghyun. A study on rail transportation in Iksan City and its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ailway* 21, no.7: 708-712.
40. 이원호, 김용기, 최종희, 이종성. 2004. 일제강점기 군산의 도시경관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권, 4호: 97-103.  
Lee Wonho, Kim Yongki, Choi Jonghee and Lee Jongsung. 2004.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ownscapes in Gunsa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0, no.4: 97-103.
41. 익산시. 2018. 익산 평화동 구 순천여관(명문여관, 나루토여관) 기록화 조사보고서. 익산: 익산시.  
Iksan. 2018. *Investigation Report of Iksan Pyeonbwa-dong Old Suncheon Inn*. Iksan: Iksan-si.
42. 조선일보. 1921. 음악연주회. 12월 4일, 4면.  
Choson Ilbo. 1921. A music concert. December 4, 4P.
43. \_\_\_\_\_. 1923a. 군산에 수해구제연주. 8월 30일, 4면.  
\_\_\_\_\_. 1923a. Flood Relief Concert in Gunsan. August 30, 4P.
44. \_\_\_\_\_. 1923b. 활동사진흥행. 3월 27일, 4면.  
\_\_\_\_\_. 1923b. Box office. March 27, 4P.
45. \_\_\_\_\_. 1923c. 본보일천호(本報一千號) 기념연주. 5월 26일, 4면.  
\_\_\_\_\_. 1923c. A performance to mark the publication of the 1,000th issue. June 26, 4P.
46. \_\_\_\_\_. 1925a. 군산공보(群山公普) 동창회. 6월 1일, 1면.  
\_\_\_\_\_. 1925a. A class reunion of Gunsangongho. June 1, 1P.
47. \_\_\_\_\_. 1925b. 영신학원 가극. 12월 22일, 2면.  
\_\_\_\_\_. 1925b. Youngshin Academy Musical. December 22, 2P.
48. \_\_\_\_\_. 1926a. 군산부민대회. 8월 8일, 1면.  
\_\_\_\_\_. 1926a. Local Residents of Gunsan Assembly. August 8, 1P.
49. \_\_\_\_\_. 1926b. 군산좌에서 흥행 중인 구파(舊派) 화중선(花中山) 일행의 소행(所行). 11월 14일, 2면.  
\_\_\_\_\_. 1926b. Gupa Hwajungseon is popular in Gunsan Jwa. November 14, 2P.
50. \_\_\_\_\_. 1926c. 군산칠성회(群山七星會) 신극 연구. 9월 1일, 1면.  
\_\_\_\_\_. 1926c. Gunsan Chilseonghoe, Research of Joseon Modern Drama Research. September 1, 1P.
51. \_\_\_\_\_. 1926d. 우리예술협회 거(去) 3일 군산에서 창립. 7월 16일, 1면.  
\_\_\_\_\_. 1926d. Woori Art Association, Founded in Gunsan on July 3rd. July 16, 1P.
52. \_\_\_\_\_. 1926e. 출연 중에 금지. 11월 10일, 2면.  
\_\_\_\_\_. 1926e. Prohibited during appearance. November 10, 2P.
53. \_\_\_\_\_. 1927a. 군산미선화야학부(群山米選會夜學部) 동정회 성황. 5월 2일, 1면.  
\_\_\_\_\_. 1927a. A great success of Gunsanmiseonhoe night school dongjeonghoe. May 2, 1P.
54. \_\_\_\_\_. 1927b. 군산영화회(群山映畫會). 5월 30일, 1면.  
\_\_\_\_\_. 1927b. Gunsan Movie Group. May 30, 1P.
55. \_\_\_\_\_. 1927c. 마산 우편국 이전 문제. 9월 1일, 4면.  
\_\_\_\_\_. 1927c. Masan Post Office Relocation Issues. September 1, 4P.
56. \_\_\_\_\_. 1928a. 군산에서 조선 명편 활사. 12월 4일, 4면.  
\_\_\_\_\_. 1928a. Screen Joseon masterpieces in Gunsan. December 4, 4P.
57. \_\_\_\_\_. 1928b. 신파 '백연회(白演會)'. 1월 7일, 4면.  
\_\_\_\_\_. 1928b. Sinpa 'Baekyeonhoe'. January 7, 4P.
58. \_\_\_\_\_. 1928c. 토월회 공연. 12월 26일, 4면.  
\_\_\_\_\_. 1928c. Performances of Towoolhoe. December 26, 4P.
59. \_\_\_\_\_. 1929. 배구자일행(裵龜子一行) 군산서 공연. 12월 16일, 2면.  
\_\_\_\_\_. 1929. Performing in Gunsan, a Baeguja. December 16, 2P.
60. 조선총독부. 1917. 1/10000 지도.  
Choson Government-General. 1917. 1/10000 map.
61. 중외일보. 1929. 군산극장신축. 10월 7일, 4면.  
Choongwoi Ilbo. 1929. Gunsangeukjang New Construction. October 7, 4P.
62.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2019년 12월 20일 검색).  
Locality Grandculture. <https://terms.naver.com> (accessed

December 20, 2019).

63. 朝鮮時報. 1917. 松井須磨子劇觀覽デー. 7월 7일, 5면.  
Choseon Sibo. 1917. Sumiko Matsui Theater Day. July 7, 5P.
64. 朝鮮新聞. 1924. 謹賀新年 群山座. 1월 5일, 1면.  
Choseon Sinmoon. 1924. Congratulations to the New Year  
Gusanjwa. January 5, 1P.
65. \_\_\_\_\_. 1916. 群山に新らしく大劇場を設置する. 12월 18  
일, 1면.  
\_\_\_\_\_. 1916. Establish a new grand theater in Gunsan.  
September 18, 1P.

- 
- 논문 접수일: 2020. 4. 10.
  - 심사 시작일: 2020. 5. 15.
  - 심사 완료일: 2020. 6. 25.

---

## 요약

주제어: 군산극장, 군산좌, 지역 극장, 지역성, 문화적 역할

군산좌는 일제 강점기 군산에 설립된 극장으로, 개항장 군산에서 유동 인구와 상업 자본에 힘입어 성장한 대표적인 지역 극장이었다. 군산좌는 지정학적으로 경부선 철도와 유리된 지역에 위치한 극장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볼 때 연극/영화/공연 콘텐츠의 수급과 유통에서 불리한 측면이 다분했다. 그러나 군산좌는 호남(전라도)으로 향하는 순회공연에서는 지리적 이점을 지닌 극장이었고, 공연 단체가 해당 루트(한국의 서쪽 지역)를 지향할 경우 콘텐츠의 독점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상대적 편의성도 지닌 극장이었다. 이로 인해 군산좌는 이른 시기부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극장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군산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극장으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지리적 상황과 도시 규모 그리고 당시 교통망(철도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군산과 군산좌가 맺는 관련성에 대한 파악도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군산좌의 실체와 특징을 살피기 위하여, 당시 지도와 신문 기사 그리고 공연 사진과 관련 인물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군산좌의 위치, 규모, 시설, 사주, 그리고 공연 콘텐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